

**현대불교 인증캠페인**

올 1월 '프리텔'에 개설한 사이버 동호회 '청년불교 우리사랑', 서울시 신림9동에 있는 연화정사 청년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개설했지만 이런 정국적으로 1천명이 넘는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별 모임도 활발해 부산지역은 벌써 서너번 모임을 가졌다. '다음' 카페에서 활동하고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있는 '인연'은 사이버 불교 동호회 가운데 가장 많은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하루에도 70여건의 글이 게시권에 오르고, 매일 글 올리는 사람도 있다. 사이버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늘고있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이뤄지던 우리 사회가 통신과 인터넷의 등장으로 '넷연(Net연)'으로 대체되고 있는 양상이다. 다음이나 프리텔, 싸이클럼 같이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된 종교관련 사이버 동호회는 졸업자 2만여개, 각종 명목으로 이뤄진 이 동호회에 '넷-가족' 수백만명이 인연을 맺고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전국 대규모 모임  
 사이버 동호회의 힘**

20일 현재 '다음'에 올라있는 종교 동호회는 모두 13,998개. 이 가운데 전체의 80%가 넘는 11,294개가 개인회 동호회다. 이에 비해 불교 동호회는 그 3분의 1이 조금 넘는 364개에 머물고 있다. 이나마 대부분 회원수가 30~40명 선이라 동호회라 부르기 민망한 곳이 많다. 회원수 1백명을 넘는 동호회는 20여개 정도. 1천명을 넘는 곳은 두 곳 뿐이다. 개신교의 경우 회원수 1천명이 넘는 동호회만 20여개다. 물론 회원수가 많다고 좋은 동호회는 아니다. "그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 마음을 내어 주느냐가 중요하다"(다음 불교동호회 '인연'의 한 법우) 하지만 프리텔 불교 동호회 '청년불교 우리사랑' 이성과 부회장은 "동호회라면 적어도 회원수가 1백명은 돼야 꾸준한 활동이 보장되고, 모임이 활성화된다면 5백명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부회장은 또 "현재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개설된 불교 동호회의 경우 특정 절의 신도모임이나 화성회 모임이 대부분이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동의 관심사를 끌어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jiny@buddhapia.com)

※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캠페인 이번 호로 마칩니다.

## “한국불교 해외포교 현지인 교화 나설때”

종단협 한국문화체험 국제포교사 60여명 참가

“해외에서 한국불교를 든든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린이·청소년, 현지인 포교가 시급하다. 교계차원의 어린이·청소년포교를 위한 훈련된 국제포교사 파견, 지역별 한국불교 사찰연합회 결성, 신도교육 및 포교자료 지원 등이 요구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문화관광부의 후원으로 60여명의 국제포교사와 예비포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18일부터 21일까지 불국사 해외사부석사에서 개최한 1회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국제포교사들은 포교 체험사례 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종단과 해외사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인 해외포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제포교사들은 한국불교 해외전래 30년을 맞아 그동안 한국교포 대상에서 현지인 포교로 전환할 때가 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외국인들의 정서에 맞는 외국어 법회운영, 참선 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신앙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유키로 결의했다.

또 각국의 현지문화속에 성장한 2·3세 교포들이 민족의식을 찾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전통종교인 불교계가 중심이 돼 민족문화와 민족업을 고양하고, 교육하는 간접포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도 나왔다. 비주불교 현황에 대해 발표한 김무신 국제포교사(LA포교사단)는 “한국불교 현지정착을 위해 미국 주류층 포교가 중요하다”며 “LA포교사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포교작업을 6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포교체험”과 관련해 김병곤 국제포교사는 “러시아

의 조선족 교포들은 한국어와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고, 러시아 현지인들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정신세계의 빈곤함을 불교의 참선수행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해외포교사들의 포교체험사례의 내용을 정리하여 해외포교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사무국장 법현스님은 “내년 문화체험 행사에는 보다 많은 해외포교사를 초청하여 한국불교의 국제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 국립공원시민위 27일 발족

**국가공원법 제정 등 추진**

국립공원제도가 선 시민위원회(국립공원시민위) 준비소위원회는 21일 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4차 모임을 갖고 국립공원시민위 발족식을 27일 오전 9시30분 서울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거행하기로 했다. 이날 준비모임에서는 국립공원시민위의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국가공원법 제정 △한경부

국립공원구역 조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출 △국립공원 관리정책 간담회 개최 △국립공원시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 문제점 부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공원시민위에는 조계종총무원을 비롯 불교환경교육원 재가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대한산악연맹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오페라로 “직지 환생”**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시공을 뛰어넘어 오페라로 다시 태어났다. 22~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직지심체요절>의 제작 동기와 시대적 상황을 한국적 오페

라로 형식화한 창작 오페라 ‘직지’가 공연돼 호응을 받았다. 민족의 수난시대에 세계적 문화유산을 창작하는 과정을 한국적 정서와 회한이 담긴 아리아와 장엄하고 화려한 불교의식에 담았다. 11월 9~12일에는 청주에서 공연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 ‘출범’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상임공동대표 법장스님 등 5인)는 19일 서울 종로5가 연강홀에서 종교인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라이라마 방한을 위한 평화의 민남’이란 주제로 공식 출범식을 갖고, 11월 16일로 예정된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상임공동집행위원장 박공시교수는 경과보고에서 “준비위 출범을 계기로 청와대 연담, 중국대사관 항의방문을 비롯 달라이라마 방한성사와 문화주권 수호를 위한 2천만명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앞서 해일 조계종 총장 스님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남북의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달라이 라마가 한국의 전통불교를 찾고 세계평화에 더욱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총 목사는 축사를 통해 “중국정부가 달라이 라마 방한을 반대하는 것은 조선시대 종주국이었던 명나라 행세를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한국정부는 주권국가로서의 위신을 세워 유일한 분단국가에 달라이 라마의 평화의 꽃비를 내

**“달라이 라마 방한허용”  
 국회의원 8명 촉구**

국회 의원연구모임인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대표·김원우 한나라당의원)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19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11월 방한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다음 주부터 새 연재**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 ‘달마 이야기’

지금 우리에게 ‘달마’는 어떤 의미일까요? 1,500여년이라는 세월 저편의 인물, 디지털로 상징되는 이 시대의 삶에 끼여들 여지가 있거나 한 것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앞서, 이른바 ‘달마 신드롬’이라 부를만한 일련의 현상들, 이를테면 집안에 달마도를 걸어두면 수백이 차단된다고 믿는 현상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학적 인 태도라고 타박할 일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바탕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달마는 바로 희망의 상징입니다.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희구하는 인간들의

근원적인 원(願)의 표상이 바로 달마인 것입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도 그것이며, 오늘 우리가 달마를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듯 달마는 우리 삶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달마는 선불교의 초조라는 사실 말고는 다분히 신비적이거나 전설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현대불교’에서는 역사적 인물로서의 달마와 비실존적 인물로서의 달마라는 양면에 걸쳐 달마의 생애와 가르침을 조명해 나갈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들 달마 걸음으로 이끌 필자 이규행 씨는 1935년에 충남 공주에서 나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1960년 <조선일보> 기사를 시작으로,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을 거쳐 1981년~1991년까지 <한국경제신문> 사장, 1991년~1995년까지 <문화일보> 사장과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중앙일보>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현묘학회를 이끌며 수행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 불심으로 가는 그 길에 언제나 자비로가 함께 합니다!

고마우신분들께 사랑을 선물하세요!

**자비로 제품특징** 남녀공용(225mm~265mm)

- 천연가죽 뉴백의 사용으로 착화감이 뛰어남
- 하이퍼그립의 사용으로 미끄럼방지 및 접지력 탁월
- 특수방수 처리
- 스토퍼를 사용해 워킹시 발의 안정감을 줌 (스토퍼 고정용 자석 부착으로 착화시 더욱 편리해짐)
- 통기성이 뛰어난 고급삼베 인솔 사용
- 가볍고 편안해서 스님 및 불자들의 신행에 적합

전국 르까프 매장에서 만나실수 있습니다

● 본 사 041)309-7000	● 서울영업본부 02)3200-600
● 동서울지점 02)3200-620	● 남서울지점 02)3200-780
● 호남지점 062)958-2131	● 대구지점 053)964-5476
	● 대전지점 042)582-1892
	● 영남지점 051)309-7110

Only One Number One — 본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388-1 TEL: 051-309-3663(대)  
 (주)트렉스타 FAX: 051-309-3666 서울영업소 02-863-2566  
 http://www.treksta.co.kr

성불화-자비로